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2-02-29

환경변화에 따른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과
장학재단의 대응

강 형 구

전 상 경

2012. 02.

제 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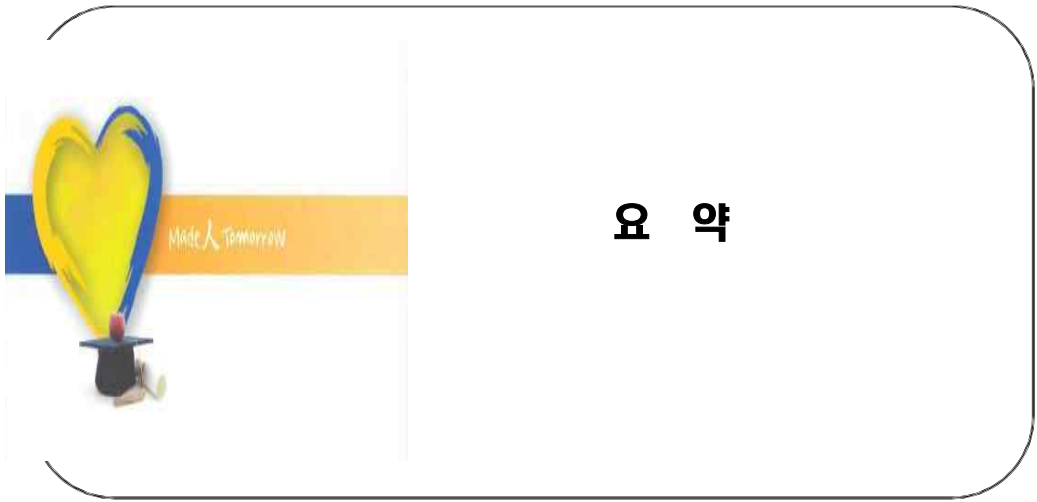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인 『환경변화에 따른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과 장학재단의 대응』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2월 일

- 연구 기간 : 2011. 11. ~ 2012. 2.
- 연구원 : 강 형 구, 전 상 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1. 서론

- 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학자금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미래의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 및 금액을 적절히 추정하고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금리 학자금 대출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자금대출 수요 추정을 위한 모델을 정립하고 둘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용비율, 인원, 소요금액을 예측하며 셋째,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시나리오 별 학자금대출 수요를 추정한 후 넷째, 새로운 형태의 핵심 상품에 대한 개발 등 한국장학재단의 대응방안을 제안함.
- 특히, 든든학자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Keller의 Brand Equity 이론은 도입한 체계적 브랜드 관리에 대해 논의하였고, 든든학자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상품에 대해 연구함.
- 본 연구는 미래 예상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 및 이용 금액을 추정한 후 그에 따른 알맞은 학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Scenario planning을 통해 앞으로 장학재단이 대출 수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학자금대출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II.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 모형

1. 수혜 가능 대상 학생 수 산출 모형

- 향후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생 수 추정을 이용하였고 2년제 학생의 감소 추세에 따라 전망 1, 전망 2로 구분하였음.
 - ① 전망 1: 상대적으로 가파른 2년제 학생 수의 감소
 - ② 전망 2: 상대적으로 완만한 2년제 학생 수의 감소
- 대학정원 전망에 따른 수혜가능 대상 학생 수를 추정하고, 4년제 및 2년제 대학의 학기 별 수혜가능 대상 학생 수를 추정하였고, 타 부처에서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는 제외함.

2. 학자금대출 수요곡선 추정

-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수혜 가능 대상 학생에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을 이용하는 각각의 비율을 기준비율로 삼고,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에 따른 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정함.
 - ① 현재의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을 기준비율로 활용하되 성적요건에 따른 조정을 적용함.
 - ② 각 학자금의 최소 이용비율은 대출금리가 높더라도 신용이 없는 학생은 기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1%로 가정함.
- KTB와 대출금리 간 spread 변화 및 외부요인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용비율 추정

- ①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을 학자금대출 금리와 국고채 금리 간의 spread의 함수로 가정하여,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각각의 수요함수를 설정함.

$$\text{Spread} = \frac{\text{학자금대출 금리} - \text{KTB 금리}}{\text{KTB 금리}}$$

- ②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의 수요함수는 Spread에 따른 각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의 기준비율과 비율의 최소값 및 최대값을 설정하여 각 학자금의 수요비율은 다음과 같이 되도록 spread의 2차 함수로 가정하여, spread domain: [-1, 1]에서 각 학자금 신청 비율이 [최소비율, 최대비율]을 가지도록 근사함.
- ③ spread의 수준 외에 경제상황 및 국고채 금리 수준의 변화,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비율 차이를 함수에 반영함.
- ④ Spread에 따른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의 각 수요함수를 설정하여 도출된 각 수요비율의 결과의 합을 통해 전체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을 추정하였음.

3.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 방법론

□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 및 소요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음.

- ① 추정된 학자금대출 수요함수에 대학정원 추이 전망을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을 추정함. 추정된 학자금대출 이용비율과 대학정원 추이 전망을 활용하여 학기 별 4년제 및 2년제 대학 학자금대출 인원을 추산하여 한 학기 평균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을 추정함.

- ② 등록금 지원액의 추산은 최초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등록금 수준과 그 증가율, attending 기준 학생 수를 고려한 전체 등록금액을 산출한 후 국가장학금 예산, 대학장학금 지원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을 산출하였음.
- ③ 이를 토대로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지원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 연간 학자금대출 신청인원이 부담하는 실질 등록금 부담액을 산출하여 학자금대출 예산액을 추정하고, 학자금대출 중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대출에 각각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함.
- ④ 또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대출의 현재 이용비율에 기반, 든든학자금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학자금대출 예산 중 각 학자금대출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을 추정함.

III. Simulation을 통한 학자금대출 수요 예측

1. Simulation을 위한 변수의 설정

- 시뮬레이션을 위해 KTB 금리의 수준을 3.5%~4.5%로 산정하고 이와 연계된 학자금 대출금리가 최소 0.90% 수준에서 최대 6.75%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 있도록 spread를 선정하였음.
- 수요곡선 추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함.

범주	세부내역	평균	
Spread	연간 spread 증가율	0.00%	
학자금 구성	타 부처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	326,100명	
	연간 타 부처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 변화율	0.00%	
학자금 자격요건	든든학자금	성적요건 충족 비율 (C 이상)	90%
		소득분위요건 충족 비율 (7분위 이하)	70%
	일반학자금	성적요건 충족 비율 (C 이상)	90%
		소득분위요건 충족 비율 (8분위 이상)	30%
외부적 요인	경제상황 및 국고채 금리 변화	0.00%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비율 차이에 의한 수요 하락률*	0.00%	

- Spread = -0.8, -0.5, -0.2, 0, +0.2, +0.5일 때를 그래프로 분석하였으며, 학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을 감안하여 spread가 작은 경우의 수가 높은 경우보다 많음.
- Spread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을 시뮬레이션 하면 학자금 대출금리가 상승할수록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은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금리에 따른 대출수요의 변동은 일반학자금보다 든든학자금에서 더 크므로, 든든학자금이 일반학자금보다 대출금리의 변동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 및 대출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변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함.

범주	세부내역	평균
장학금	최초 국가장학금 예산	1조 7,500억 원
	연간 국가장학금 증가율	1.50%
	최초 국가장학금 연계 대학장학금 예산	7,500억 원
	연간 대학장학금 증가율	0.50%
	등록금 대비 최대 장학금 비율	50.00%
등록금	최초 사립대 평균 등록금	8,500,000원
	연간 사립대 등록금 증가율	1.00%
	최초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700,000원
	연간 국공립대 등록금 증가율	1.00%
	최초 전문대 평균 등록금	5,300,000원
	연간 전문대 등록금 증가율	1.00%
	전체 대학정원 중 사립대 정원 비율	75%
전체 대학정원 중 국공립대 정원 비율	25%	
생활비	1인당 생활비 대출	1,000,000원
	생활비 상승률	3%

2. 학자금대출 인원 추정

- 학기 별 예상 전체 대상 학생 수와 예상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의 함수의 평균으로 추정한 전체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은 2015년을 전후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 전체 대상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2020년대 초·중반의 대출인원은 가파르게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의 예상 대출인원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학자금대출 금액 추정

- 추정된 학자금대출 이용 인원이 부담하는 예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및 대학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부담 등록금을 학자금대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추정함.
- 예상 학자금대출 소요액은 2015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까지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급격히 하락한 후 2025년 이후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임.
- 국가장학금이 4조 원으로 증액될 경우의 학자금 대출금액을 재추정하면 학자금 대출금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학자금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증액에 따른 대출금액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장학금 증액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학자금 대출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IV. Scenario Planning의 적용

1. Scenario Planning 도입 배경

- 시나리오 별로 변수 간 다양한 조합을 시험하여 특정 가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시나리오 간 비교를 통해 다양한 미래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
- 본 추정에 있어 Scenario Planning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음.

- ① 학자금대출 인원 및 규모 추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므로, Scenario Planning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와 결과와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 ② 학자금대출 인원 및 규모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③ 제3장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한 변수 값의 변화가 학자금대출 수요에 미치는 결과만을 고려한 반면, Scenario Planning을 통해서는 Scenario 별로 상이한 가정에서 비롯한 서로 다른 여러 변수 값의 조합이 학자금대출 수요에 미치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어 더 동적이고,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포괄적 이해가 가능함.

□ 각 시나리오 별 변수 값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Scenario 1 복지 프레임의 강화와 대체재 매력도 증가	Scenario 2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Scenario 3 학생 부담 증가로 인한 KOSAF 수요 증가
대출금리 spread		-30%	0	30%
성적요건*	든든학자금	C 이상	C 이상	B 이상
	일반학자금	C 이상	C 이상	C 이상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	4.5%	8.4%
	사립대	3.5%	5%	6.4%
	2년제	3.5%	5%	6.4%
장학금 증가율***	국가장학금	10%	7%	3%
	대학장학금	3.5%	2.5%	1%

□ 각각의 시나리오에 설정된 상황에 따른 예상인원과 대출 금액을 Simulation하면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됨.

□ Scenario 1: 적극적인 교육 지원 정책 가정

- 학자금대출 예상 인원은 2010년 후반까지는 40만 명을 상회하지만 전반적인 대출 인원 추세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 대출 예상 인원이 많은 초기에 집행되는 학자금대출 규모는 크지만 그 추세는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실질적인 등록금의 감소 추세로 인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

□ Scenario 2: 현 수준의 교육지원 가정

- 학자금대출 예상 인원은 2010년대 후반까지 30만 명을 상회하지만 전반적인 대출 인원 추세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 장학금 수혜 규모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의 증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 및 2020년대 후반에 집행되는 학자금대출 규모가 2010년대 초·중반의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 Scenario 3: 소극적인 교육 지원 정책 가정

- 학자금대출 예상 인원은 2010년 후반까지는 20만 명을 상회하지만 전반적인 대출 인원 추세는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 다른 시나리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초기 대출 규모는 적으나, 장학금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등록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질 등록금을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V. 장학재단의 대응 1: 든든학자금에 대한 전략적 브랜드 관리

1. 전략적 브랜드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

-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처하고 장학사업의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전략적 브랜드 관리를 통한 상품의 쇄신이 필요함.
- 전략적 브랜드 관리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이를 토대로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을 구축하여, 이것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컫음.

- 든든학자금 대출수요를 늘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든든학자금 대출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Brand Equity 이론

- Brand란 제품의 다른 판매자 또는 경쟁자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이름, 상표, 상징성, 디자인 또는 이 모든 요소의 조합을 뜻함.
- Brand Equity(브랜드 자산)란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반응을 창출하는 차별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Brand Equity는 Brand Knowledge와 Brand Image로 구성됨.

3. 든든학자금의 Brand Equity 형성 방해 요소와 해결 방안

- 현재 든든학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든든학자금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에 초점을 맞춘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높은 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이 소비자들이 든든학자금에 대한 주요한 불만 사항임.
-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든든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 보완하거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출 수요자의 욕구 또한 충족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학이나 다른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학생에게 등록금 대출을 해주고 장학재단(실질적으론 정부)이 학생들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의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으로는, 수요 예측에 기반한 개별 기관의 목표를 먼저 수립한 후 재단이 사후적 평가를 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있음.
- 만약 장학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시행되던 학자금대출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 질 경우, 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존재를 몰랐던 학생이 정보에 노출되면서 장학금 관련 Brand Recognition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이미 장학금의 존재를 알고 있던 기존 학생들에게도 접근성이 강화되고 정보획득이 쉬워지면서 Usage Imagery와 Strength를 강화할 수 있음.

4. 든든학자금의 전략적 브랜드 관리 적용

- 든든학자금이 대한민국 대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자금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함.
- 또한 저소득층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학자금 상품임을 명확히 알려 대출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함.
- 든든학자금 이용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를 이용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함.
- 대학 내 홍보 및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든든학자금에 대한 정보에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주력.

VI. 장학재단의 대응 2: 핵심 상품 제언

1. 핵심자산과 핵심동적역량에 대한 문헌 연구

- Wernerfelt, Barney 등은 다른 조직과의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직 고유의 핵심자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해야 한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을 주장함.
- 자원기반이론에서 자원(Resources)이란 재무자산, 기계 설비, 브랜드, 기업 고유의 기술, 마케팅 능력, 조직 운영 과정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을 의미하고 역량(Capabilities)이란 조직이 통제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유·무형 자산을 의미함.
- 동적 역량이론은 동태적 관점에서 조직의 경쟁 우위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 기업 고유 자원과 함께 새로운 고유 자원을 창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동적 능력이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임을 강조.
- Teece, Winter, Helfat 등은 다른 조직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조직이 얻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관행(routine)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만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국장학재단의 핵심자원 (core resource)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정보수집을 위해 개발된 협력조직과의 네트워크 관계로 파악됨.
- 한국장학재단의 핵심동적역량 (core dynamic capabilities)은 신용 분석 능력, Human Capital 과 Social Capital에 대한 가치평가, Mentoring 운영 가능성 파악됨.

2. Platform 개발 전략

- Platform의 정의는 핵심자산과 핵심 동적 역량을 담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조직과 개인, 조직과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을 의미함.
-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랫폼 전략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관리하고 통합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
- 플랫폼 전략에는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의 가격정책 전략, 내 플랫폼에 묶어두는 전략(especially marquee users), 가격 민감도 전략, Platform control and ownership 전략이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Platform 전략을 도입하여 교육금융 서비스의 리더가 되어야 함.

3. 핵심상품 개발 제언

- 한국장학재단의 핵심자산과 핵심동적역량을 바탕으로 핵심 상품을 개발.
- 핵심 상품의 종류에는 신용보증형 상품, Equity Contract 상품, Wealth Contingent Loan 상품, 장학적금상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신용보증형 상품은 대출은 해당 학교 및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의 상품임. 이 상품은 신규 투자기회 발생, 사회적 문제 해결,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나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가

증가하면 채권 부실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됨.

-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Equity Contract 상품은 학생들의 Human Capital에 투자하고 학생들이 미래에 창출하는 현금흐름(profit sharing)과 학생의 주요 의사결정(governance)에 대해 재단에 일정부분 환원하는 성격을 가진 상품임.

- 가계의 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를 외부금융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 대상인 학생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단점이 있음.

- Equity Contract의 안착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Mentoring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Wealth Contingent Loan은 Social Capital에 대한 투자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미래 소득 뿐만이 아니라 가계 자산을 담보로 지정.

- 대출 당사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도 자산 규모를 근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학자금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 존재.

□ 장학적금제도는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부모가 매달 약정된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저축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함께 계좌에 입금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장학적금으로 모인 기금으로 현재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하지만 일부 장학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의 반발이 우려됨.
 -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의 실정에도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함.
- 이자율 파생상품(이자율 스왑, 이자율 연계 구조화 채권)을 이용하여 기존의 장학금을 발전 시키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 할 수 있음.

VI. 장학재단의 전략 및 시사점

- 학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관리 프로그램 도입 필요함.
- 한국장학재단의 핵심자산과 핵심동적역량을 파악하고 강화해 나가야 함.
 - 신용 분석 능력, Human Capital 과 Social Capital에 대한 가치평가, Mentoring 운영 역량 필요.
- 혁신 상품의 개발은 한국장학재단의 핵심자산과 핵심동적역량을 기초로 해야 함.
- 신용보증형 학자금 상품, Equity Contract, Wealth Contingent Loan, 장학적금상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존 상품에 대해 금융 공학과 파생상품을 가미하여 현존하는

학자금 상품의 기능을 보완, 강화.

- 장기적으로 혁신을 통하여 학생들의 Human Capital과 Social Capital의 표준과 Platform을 제공하여 시장의 Leader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조직과는 차별화 되는 Platfor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